

세네갈의 눈

아르투르 스크리아빈 글 | 요안나 콘세이요 그림 | 최혜진 옮김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어	#추억 #유년시절 #엄마 #엄마의기억 #이해 #사랑 #시그림책
작성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고지연 선생님 서현중학교 김문옥 선생님 청덕중학교 김창덕 선생님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문소정 선생님



■ 도서 소개

세계적인 화가, 요안나 콘세이요의 그림과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어우러진 그림책입니다. 여름의 나라, 세네갈에 눈이 내린 낯선 일화를 시작으로 나의 빛바랜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 기억의 중심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엄마의 감정, 그런 엄마에게서 느낀 위태로움과 강인함이 글과 그림 조각에 담깁니다. 회상의 장면들이 포개지는 위로 한 여성의 서사가 단단하게 펼쳐집니다.

■ 학습 목표

-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다.
- 그림책을 읽고 드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작품의 글을 필사하며 시어의 의미와 이야기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의 그림을 자신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며 화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고 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차시
독서 준비	- 기상도 작성하며 지금 내 감정 짚어 보기 - 감정을 날씨로 표현해 보기	1차시
독서	- 그림책 『세네갈의 눈』 읽고 느낌 나누기 - 글 텍스트 중의 한 부분 필사하고 단상 쓰기 - 모둠별로 단상을 발표하며 시에 대한 느낌과 생각 나누기	2차시
	- 카드 뉴스 읽으며 엄마의 삶 이해하기 - 엄마의 자서전 쓰기	3차시
	- 양가성을 띄는 부분 찾아보기 - 눈의 상징성 알아보기	4차시
독서 후	- 기적 질문으로 미래 기상도 예측하기 - 스노우볼에 꿈 담기(스노우볼 만들기)	5차시

독서 준비

1. 자신의 '기상도'를 작성하며 자신의 지금(요즘) 기분과 상황을 알아봅시다.

기 분	자신의 지금(요즘) 기분을 표현해 봅시다.
상 황	자신이 지금(요즘) 처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도	자신의 감정을 날씨에 비유하여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2. 자신의 감정 날씨를 자세히 묘사해 봅시다.

선생님께 '기상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분과 상황을 탐색하고 인지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요즘 기분과 상황을 탐색하여 감정 날씨를 찾고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그림책 속 화자에게 몰입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독서

1. 『세네갈의 눈』을 읽고, 느낌 카드를 활용하여 모둠원들과 대화해 봅시다.

간절한	감동적인	걱정되는	겁나는
고마운	궁금한	귀찮은	기대되는
기쁜	긴장되는	놀란	다정한
답답한	당당한	당황스러운	두려운
만족스러운	망설이는	몰입하는	무서운
미안한	미운	반가운	부끄러운
부담되는	부러운	불안한	뿌듯한
사랑스러운	서운한	설레는	슬픈
신기한	신나는	실망스러운	심심한
안심되는	안타까운	억울한	여유로운
열정적인	예민한	외로운	우울한
자랑스러운	자신 있는	재미있는	조심스러운
즐거운	지친	짜릿한	차분한
충만한	친근한	편안한	행복한
허전한	혼란스러운	화나는	홀가분한
흐뭇한	흥미로운	희망찬	힘이 나는

공감 대화를 위한 질문 예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글이 있니? · 그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 · 그렇다면 ~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니? · 네가 그 장면에서 뭐가 궁금했던 거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그게 궁금했을까? · 너는 ~한 감정을 느꼈구나? ·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경험이 있니? · 그런 기분을 다른 예로 설명해 줄 수 있니? |
|--|--|

선생님께 그림책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거나 느낌을 말하기 힘든 경우, 다양한 느낌이 적혀 있는 느낌 카드판을 제시해서 고르도록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느낌 카드를 활용하면, 느낌 카드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가장 가까운 카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카드를 고른 후 공개하지 않고 다른 모둠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질문을 통해 유추하고 공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2. 그림책 읽고 필사하기

- 『세네갈의 눈』에 글을 쓴 작가는 ‘아르투르 스크리아빈’입니다. 이 이름은 작가의 필명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쓴 글만 다시 읽고 느낌을 말해 봅시다.

세네갈의 눈

아르투르 스크리아빈

내가 어렸을 때
세네갈에 눈이 내렸어
기억나
무한한 눈의 빛깔
그 빛 한가운데서, 그 눈 한가운데서,
엄마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내가 태어난 곳은 눈이 전혀 오지 않아,
수풀은 초록이야
너울거리는 초록이지,
구불구불 움직이는 뱀의 빛깔처럼
나는 다시는 그 노래를 듣지 못했어
다시는 눈을 보지 못했어
나는 일곱 살이었고 눈 오는 날 입을 옷이 없었어
구멍 난 반바지랑 티셔츠뿐이었어
죽을 만큼 추웠지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천천히 내려오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꽃잎 같았어
아주 멀고 낮은 곳에서 온 우아한 꽃
그 꽃은 여기에서 가장 멀고 가장 신기한 나라에서
자라나 고사리처럼 가볍고 너무나
아름답고 덧없기도 한 나라
꼭 엄마 목소리처럼
거의 투명해
설탕 가루 한 날처럼 자그마해
엄마를 바라보았어
엄마는 슬프지 않았어
꽃잎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그대로 멈추었어

엄마는 작은 소녀처럼 보였어
어쩌면 멀고 평화로운 다른 시간을 기억하는 중인지
도 몰라
다른 눈송이를 기억하는지도 몰라
엄마는 노래 부르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엄마 목소리는 생생하고 섬세하고 불꽃처럼 빛나고,
서늘하고 아름다웠어
깨어나게 했어
부드러움과 폭력으로 떨게 했어
눈으로 덮인 모든 것을
땅, 씨앗
엄마 입에서 멎진 것이
나타나려고 해
팔월의 빛
눈 아래, 밀림을 이룬 열매들
엄마는 따스한 바람과 키 큰 풀숲을 가로지르며
노래 불렀어
수확물과 낮을 지나
어둡고 반짝이는 잎사귀를 가로지르며
그림자의 입으로
들꽃과 곤충의 내밀한 예식 사이로
불가능함을 지나,
하지만 기적처럼 현실이 된 새들의 이주
거기, 눈 한가운데서, 엄마는 노래 부르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엄마 목소리는 창백한 불꽃이었어
용감했어
사랑과 차가움으로 떨렸고 하늘의 가장자리가
흔들리게 했어
그리고 나는 들었어
듣고 있어

- 글을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또박또박 필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 봅시다.

<p>내가 어렸을 때 세네갈에 눈이 내렸어 기억나 무한한 눈의 빛깔 그 빛 한가운데서, 그 눈 한가운데서, 엄마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내가 태어난 곳은 눈이 전혀 오지 않아, 수풀은 초록이야 너울거리는 초록이지, 구불구불 움직이는 뱀의 빛깔처럼 나는 다시는 그 노래를 듣지 못했어 다시는 눈을 보지 못했어 나는 일곱 살이었고 눈 오는 날 입을 옷이 없었어 구멍 난 반바지랑 티셔츠뿐이었어</p>	<p>죽을 만큼 추웠지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천천히 내려오는 눈송이 은은하고 아름다운 꽃잎 같았어 아주 멀고 낮은 곳에서 온 우아한 꽃 그 꽃은 여기에서 가장 멀고 가장 신기한 나라에서 자라나 고사리처럼 가볍고 너무나 아름답고 덧없기도 한 나라 꼭 엄마 목소리처럼 거의 투명해 설탕 가루 한 날처럼 자그마해</p>
<p>엄마를 바라보았어 엄마는 슬프지 않았어 꽃잎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그대로 멈추었어 엄마는 작은 소녀처럼 보였어 어쩌면 멀고 평화로운 다른 시간을 기억하는 중 인지도 몰라 다른 눈송이를 기억하는지도 몰라 엄마는 노래 부르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엄마 목소리는 생생하고 섬세하고 불꽃처럼 빛 나고, 서늘하고 아름다웠어 깨어나게 했어 부드러움과 폭력으로 떨게 했어 눈으로 덮인 모든 것을</p>	<p>I II III IV</p> <p>땅, 씨앗 엄마 입에서 멎진 것이 나타나려고 해 팔월의 빛 눈 아래, 밀립을 이룬 열매들 엄마는 따스한 바람과 키 큰 풀숲을 가로지르며 노래 불렀어 수확물과 낮을 지나 어둡고 반짝이는 잎사귀를 가로지르며 그림자의 입으로 들꽃과 곤충의 내밀한 예식 사이로 불가능함을 지나, 하지만 기적처럼 현실이 된 새들의 이 주 거기, 눈 한가운데서, 엄마는 노래 부르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엄마 목소리는 창백한 불꽃이었어 용감했어 사랑과 차가움으로 떨렸고 하늘의 가장자리가 흔들리게 했어 그리고 나는 들었어 듣고 있어</p>

선생님께 중 · 고등학생이 이 그림책을 한 번 읽고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은 후 글만 분리하여 감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사를 하면 시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화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또박또박 필사하고, 본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 봄으로써 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필사하는 부분 : []



- 필사한 부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 봅시다.

3. 카드 뉴스 활용하여 엄마의 자서전 쓰기

- 『세네갈의 눈』에 그림을 그린 이는 세계적인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인 ‘요안나 콘세이요’입니다. 다음은 『세네갈의 눈』 카드 뉴스의 장면입니다. 그림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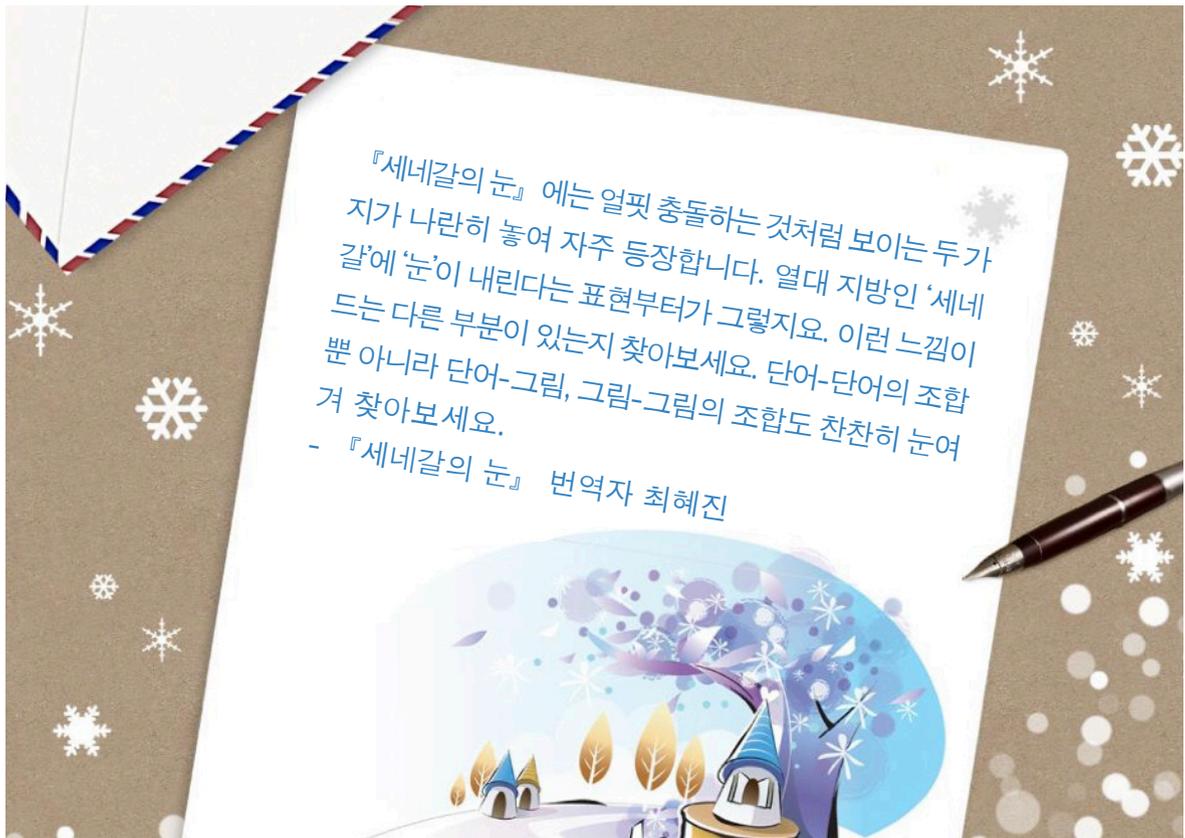


선생님께 학생들이 카드 뉴스(인터넷 서점)를 통해 엄마의 삶을 상상하여 창작해 봄으로써 엄마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공감하고, 화자가 엄마를 보며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아래 그림 카드를 잘라 적절하게 배치한 뒤 엄마의 자서전을 만들고 적어 봅시다.

4. 번역자가 보내는 '감상을 위해 묻는 편지' 활용하기

- 『세네갈의 눈』의 최혜진 번역자가 '감상을 위해 묻는 편지'에 적은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서로 대립적인 감정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양가성*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책에서 양가성을 가진 조합을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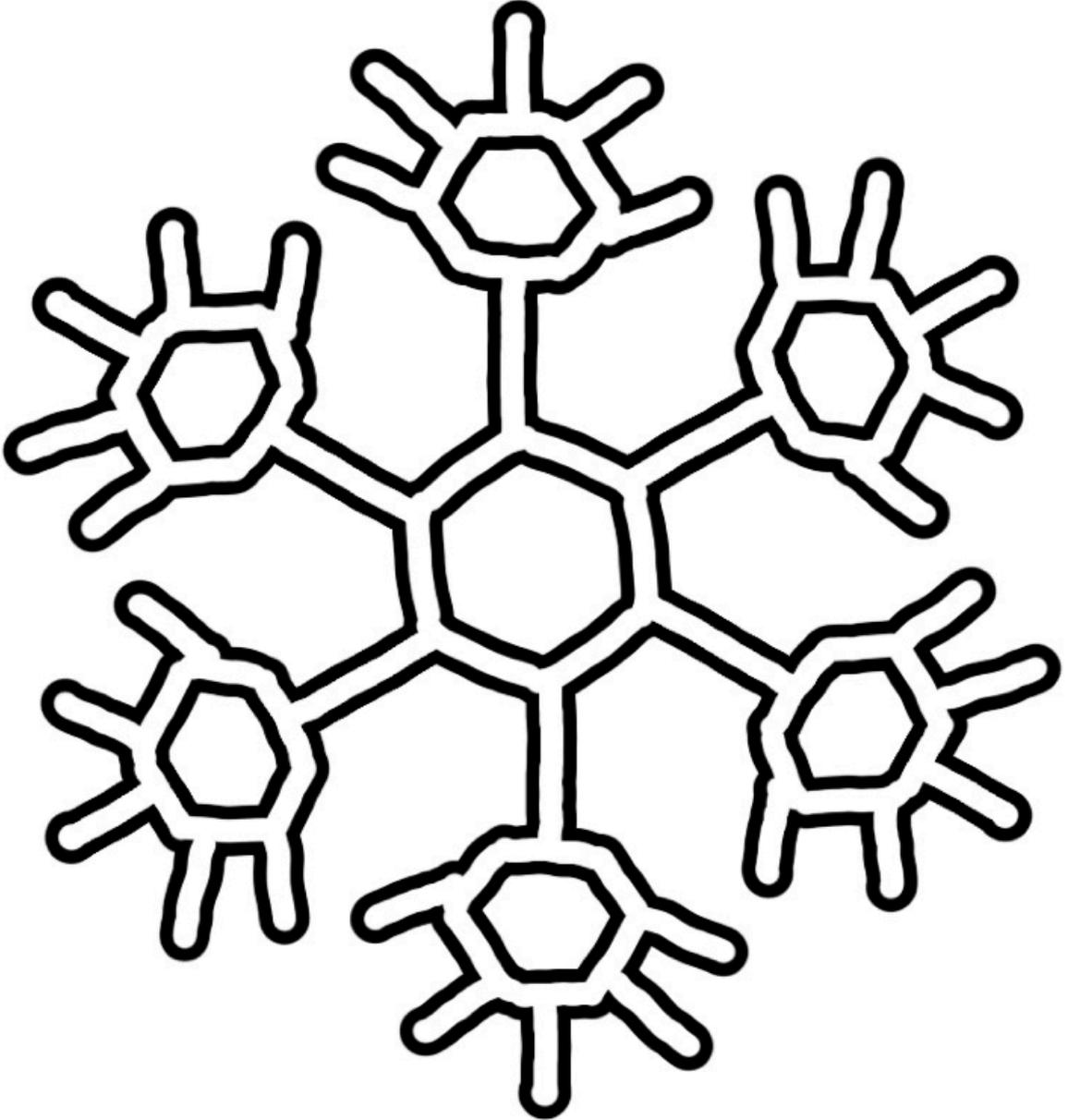


선생님께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양가성을 띤 부분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도 양가성에 해당하므로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 양가성은 사랑과 증오, 복종과 반항, 쾌락과 고통, 금기와 욕망 등 서로 대립적인 감정 상태가 공존하는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E. 블로일러(E. Bleuler)는 「양가성에 대한 소고(Vortrag uber Ambivalens)」에서 처음 양가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1) 사랑과 증오의 갈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양가성 2)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나타내는 의지적인 측면의 양가성 3) 상호 모순되는 전제를 모두 받아들이는 지적 측면에서의 양가성.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양가성 (Ambivalence)>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국학자료원, 2006)

- 『세네갈의 눈』에서 ‘눈’은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눈’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봅시다.

눈의 상징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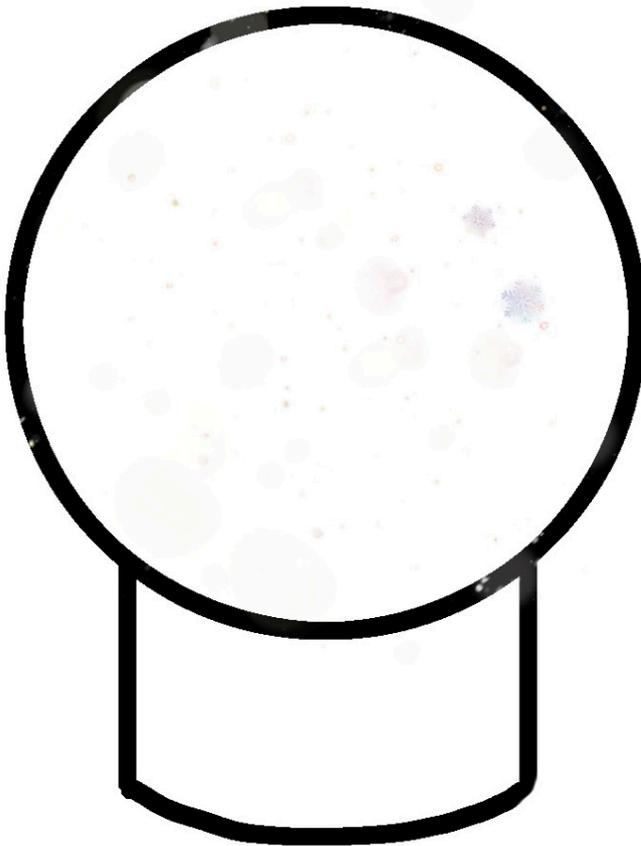
선생님께 눈 결정 모양을 활용한 모둠 토론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눈 결정 가지 끝에 자신이 생각한 눈의 의미를 적고, 그 중 하나를 골라 가운데 적도록 합니다. 모둠원끼리 각자 적은 의미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나누고, 최종으로 고른 의미 하나를 가운데 육각형 안에 적습니다.

독서 후

1. 그림책을 읽기 전에 살펴본 자신의 기상도를 떠올리며 미래 기상도를 상상해 봅시다.

현재 기상도	미래 기상도

2. 미래 기상도에서 꿈꾸는 자신의 모습을 스노우볼에 그리고, 그림의 제목을 받침대에 적어 봅시다.



선생님께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스노우볼에 자유롭게 그리고 그림의 제목을 지어 보도록 합니다.